

보도 일시	2022. 5. 8.(일) 12:00 2022. 5. 9.(월) 조간	배포 일시	2022. 5. 8.(일) 12:00
담당 부서	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팀	책임자	팀 장 김하영 (02-6021-1212)
		담당자	과 장 이강민 (02-6021-1232)

##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지원 활동 본격 시동

- 전국 6개 지역 ‘차별없는일터지원단’ 고용차별예방의 공공역할을 위한 사업 전개 -

- 노사발전재단(사무총장 정형우, 이하 ‘재단’)은 5월 9일부터 전국 350개의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차별예방 및 개선을 위한 ‘차별없는일터지원단(이하 ‘차일단’) 운영사업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.
- 2021년 차일단은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의 고용상 차별 요소를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였다. 그 결과 198개 사업장의 개선이행을 이끌었다.
- 사업장의 개선이행 결과로 기간제 및 단시간, 파견근로자, 여성 등 9,171명의 근로조건을 개선하였다.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1,094명,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48명을 전환하여,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에도 기여하였다.

구 분	2018년	2019년	2020년	2021년	계
간접고용→직접고용 전환(명)	530	247	22	48	847
비정규직→정규직 전환(명)	591	1,396	444	1,094	3,523
전환 인원(명)	1,121	1,643	466	1,142	4,370

※ 차별진단 및 개선을 통한, 근로자들의 고용구조 변화(재단 내부자료)

- 차일단은 올해도 비정규직 권익보호를 위한 차별개선에 집중한다. △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한 업종 진단 △온라인 차별인식개선교육과 권리구제 상담의 상시 비대면 운영 △대국민 참여형 차별인식개선 홍보 △차별개선 우수사례 전파 등의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
- 지방고용노동청의 추천에 따라 차일단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위한 설명회가 지난 4월 28일부터 진행되고 있으며, 5월 9일부터 사업장 방문을 시작하여 비정규직의 고용상 차별여부를 진단한다.
- 고용상 차별인식개선을 위한 ‘온라인 차별예방교육 연수원’(가칭)도 6월 공개 예정이다.
- 누리소통망(인스타그램, 페이스북 검색어 ‘차일단’)에서 고용상 차별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, 웹툰, 인포그래픽으로 제공하며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.
- 정형우 사무총장은 “전환시기의 고용회복 상황도 중요하지만,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격차를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. 차일단의 차별개선 사업이 모두의 해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투입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재단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예방 및 개선지원을 위해 2010년부터 차별 없는일터지원단 서울사무소를 비롯한 인천, 대전, 대구, 경남, 전북 등 6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,
  - 고용차별에 대해 문의나 상담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-2089로 문의하면 된다.
  - 한편 차일단의 사업내용과 홍보 자료는 재단 누리집과 누리소통망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 검색어 ‘차일단’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1. 개요

- 비정규직 차별문제는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명령 등 사후적 해결 방식보다는 차별인식개선을 통한 예방 및 고용평등문화 형성 등 사전 예방이 중요
- 따라서, 사후적 해결 방식의 보완을 위해 사업장 내 차별의 진단 및 개선 지원, 교육상담 및 홍보사업 수행

〈 「차별없는일터지원단」 사업 주요내용 〉

- (진단 및 개선지원) 사업(장) 내 비정규직 차별 요소의 유무를 진단하고, 필요 시 개선권고 및 컨설팅 등 개선지원 활동 수행\*
  - \* ① 차별의 원인이 되는 취업규칙 등의 개정(안) 마련 ② 임금 항목 및 수준, 휴가 등 인사제도의 개선계획 수립 지원 등
- (교육·상담) 근로자 및 사업(장)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 관련 제규정·제도 등에 대한 교육, 상담 수행
- (홍보) 차별개선 슬로건 공모전, 우수사례 발표회 등 홍보 활동 수행

2. 경 과

- `10년, 노사발전재단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→ 전국 6개 지역에 「차별없는일터지원단」 설립, 교육 및 홍보사업 등 수행
- `12년, 사업장 내 차별적 요소의 ‘진단 및 개선지원사업’ 시행
- `16년, 사업효율화를 위해 지방노동관서와의 협업체계 구축
  - \* 지방노동관서의 추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단사업 실시 등
- `18년, 개선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한 ‘진단패키지’ 서비스\* 제공
  - \* (전) 차별진단 및 방문교육 별도 실시 → (후) 차별진단 및 방문교육을 병행
- `20년, 차별 진단지 개편, 차별현황 및 개선이행 등 전산 DB화 시행
- `21년, 차별개선 우수사례 발굴로 ‘차별개선사례’ 적극 전파